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2022 국제학술대회

모시는 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단장 변주승입니다.

2021년 5월 2단계에 진입한 우리 HK+연구단에서는 ‘유교문화의 탈구축, 대안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현재의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단계 1년차 국제학술대회 는 2022년 1월 14일(금요일)에 줌 회의실을 통해 〈근대국가의 몸관리 그리고유교적 ‘身’(몸)〉이라는 주제로 학술의 향연을 펼치고자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에 대비해서 몸은 소외되었습니다. 서양의 이분법적 형이상학이든, 동양의 유기체적 사고이든, 정신과의 관계에서 몸은 하위개념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정신이 아니라 몸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근대국가의 몸에 관한 관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1부에서 ‘몸의 제도학’, 2부에서는 ‘근대 인간과 몸’이라는 주제로 여러 학자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것이고, 3부에서는 몸에 관한 유교적 논의를 발전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몸에 관한 유교적 담론’이라는 주제로 논의와 논평을 진행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팬데믹 상황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의 사형제도와 관련된 담론, 한성춘의 춤과 몸에 관한 논의와 일본내 한센병 요양원에 있어서의 재일조선인 여성에 관한 고찰, 한국 근대 수영복의 등장과 신체의식의 변화에 관한 고찰, 유학의 몸과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문제를 신체화된 마음의 관점에서 보기, 한말 교과서에 나타난 수신론 연구,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그리고 유교적인 것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몸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통해 풍성한 국제학술대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단장 변주승 배상